

해설프로그램 개요서

성 명	태백산국립공원 천서경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본 <input type="checkbox"/> 간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유 <input type="checkbox"/> 지정
대 상	공부에 지친, 여자 중학생 1학년 10명		
제 목	숲 속 영화제의 시작, 올해의 주인공은 버섯!		
해설주제	버섯이 숲에서의 역할로 계층화 된 사회구성원 속 청소년 우울증 해소하기		
활동목표	버섯의 생태적 지위를 통해 인간중심적인 환경교육을 되돌아본다.		
해설재료 (준비물)	숲 사진, 버섯, 동물 등의 소품, 마이크, 대본, 버섯카드	소요시간 (분)	10분
유의사항	실내 활동으로 큰 유의점은 없으나, 안전에 대한 간략한 설명하기		

프로그램 진행순서

해설 단계	해 설 주 제	주 요 내 용	준비물 (교구재)	소요시간 (분)
도 입	OT 프로그램 제시	자기소개 및 안전관련 주의사항과 당부하기	구급키트	1분
	PT 프로그램 설명	'환경 감수성을 키우자' 란 자유학기제 10차 구성 중 1차 시간으로 내용 설명하기	마이크	1분
주 제 별 해 설	대상의 선정 숲과 나	숲에 대한 이미지 이야기하기 숲 생태계를 '영화제'로 표현한 이유	숲 사진 버섯 소품	1분
	대상의 정의 버섯이란?	곰팡이와 버섯의 차이, 버섯의 생태적 지위	곰 팡 이 사 진	1.5분
	대상의 구분 버섯 발표회	송이와 오디균핵버섯의 번식방법 '모성'에 대입하여 '버섯의 의인화'하기	버섯 우산 버섯 폭죽	1.5분
	관점의 전환 오디균핵버섯	오디균핵버섯 이야기 인간중심에선 '나쁜 버섯'이란 오명.	마이크 소품	2.5분
마 무 리	숲을 통한 내 자신의 소중함	작은 버섯의 숲 속 생태 지위로 보는 개개인의 소중함, 숲을 통해 청소년 우울증 극복	버섯카드	1.5분

해설프로그램 시나리오

성명	천서경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본 <input type="checkbox"/> 간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유 <input type="checkbox"/> 지정
대상	공부에 지친, 여자 중학생 10명		
해설주제	버섯이 숲에서의 역할로 계층화 된 사회구성원 속 청소년 우울증 해소하기		

프로그램 진행순서

해설 단계	해설 주제	내용
도입	OT 프로그램 제시 (1분)	<p>안녕하십니까. 19기 천서경입니다.</p> <p>저는 '공부에 지친 여자 중학생 10명'을 대상으로 한, '자유학기제 환경 감수성을 키우자'란 슬로건 하에 10차 과정 중 첫 시간을 구성해보았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p> <p>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태백산 국립공원 '꽃받침' 해설사 천서경입니다. (그래요, 이 반응 예상했습니다!) 예뻐서 꽃받침이 아니라, '자연'이란 식물에서 '인간이란 가장 번성한 꽃'의 가장 바깥부분에서 보호하는 '꽃받침'이란 의미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바로 저의 주인공 '꽃님'입니다.</p> <p>실내 활동이라 큰 위험요소는 많지 않겠지만, 불편한 점이 있다면 구급키트를 갖고 있으니, 말해주세요.</p>
	PT 프로그램 설명 (1분)	<p>혹시, '환경 감수성'이란 말을 들어본 사람 있나요?</p> <p>네, 환경도 아는 말이고 감수성도 아는 말인데, 환경 감수성은 모르겠죠? 이는 '자연을 애 닳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강아지가 다치거나 고양이가 어미를 잃어서 울고 있을 때 느끼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바로 '환경 감수성'입니다.</p> <p>아주 거창하지 않고, 우리 모두의 마음이죠.</p> <p>선생님은 보다 그 대상을 확장해서 자연 속 외면당하기 쉬운 존재가 있을까 고민해보았어요.</p> <p>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공부를 하고 있지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은지 한 번 생각해보고 멀리 나아갈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p> <p>우리에게 힌트를 줄 자연에서 대상을 한 번 찾아볼까요?</p>
주제별	대상의 선정	음, 친구들 '숲'하면 어떤 게 떠올라요?

해 설	<p>숲과 나 (1분)</p>	<p>숲? 숲에는 (숲 사진을 붙이며) 볼까요? 낙엽이 쌓인 걸 보니 가을 숲 같아요. 여기 보니 네, 현진친구 말처럼 '나무'도 있구요. 네, 동물, 곤충이 있습니다.</p> <p>여기서, 오늘의 제목이 등장합니다. 짜잔!(숲속 영화제 제목을 붙이며)'숲 속 영화제' 숲 속 영화제? 무슨 말일까요? 선생님은 숲 생태계 즉, 숲에 사는 모든 생물과 비 생물을 포함한 것을 '영화제'로 표현하고 (버섯을 붙이며) 올 해의 주인공은 '버섯'이라 정했습니다. 우리 오늘 환경놀이의 제목이 '숲 속 영화제, 올 해의 주인공은 버섯'입니다. 그렇다면 주인공 버섯에 대해서 알아보까요?</p>
	<p>대상의 정의 버섯이란? (1.5분)</p>	<p>음, 친구들 버섯은 동물일까요? 식물일까요? 어머? 세진이 친구 잘 알고 있네요! 맞아요. 둘 다 아니죠! 균류라는 다른 생물입니다. '균'이란 건 맞아요. 세균, 곰팡이를 뜻하는 말입니다.</p> <p>그렇다면! 곰팡이와 버섯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곰팡이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진, 찬바람이 부는 요즘 찾게 되는 '굴'에 곰팡이가 피어난 사진입니다. 이러한 곰팡이와 버섯 의 차이점은 영양분을 먹는 건 같지만, 바로 생장! 즉, 번식하고 눈에 보이는 결과물 즉, 자실체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p> <p>그쵸? 은경이 친구 어렵죠? 우리 지금 노는 거라고 했는데, 쉽게 말해서 균인데, 식물과 같은 성장을 하는 것이 버섯이에 요. 그런데 왜 식물이 아닐까요? 식물과 버섯의 가장 큰 차이는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식물과 다른 생물에게 양분을 얻어야만 살 수 있는 버섯, 이해되나요? 좋아요. 은경이 친구 고개를 막 고덕여주니 계속 이야기 해볼게요.</p> <p>그렇다면 버섯이 이 숲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바로 '청소부, 소화제'의 역할입니다. 땅에서 식물이 태어나 다 시 땅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잘 분해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것이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면 우리 몸에도 좋지 않겠죠? 작지만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버섯입니다.</p>

	<p>조금 친숙해졌나요? 우리 '첫 시간'이기에 본격적인 '영화제'에 앞선 버섯소개 시간을 하는 것까지만 하려고 해요. 우리 버섯이 균류라는 것을 알았으니, 그 버섯을 또 나누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쉽고 재밌게 알아보도록 해요. 이거 누군지 알겠어요? 오, 현진이 친구 맞아요. 송이에요! 네, 그렇죠. 맛있죠. 네, 이런 맛있는 송이가 어떻게 번식 하는지 아나요? 여기 보세요. (버섯 우산을 꺼내 보이며) 여러분 버섯이 우산과 닮았다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바로, 송이와 닮은 버섯들은 (우산을 펼쳐 보이며) 이렇게 번식을 합니다! 아래에 달린 품퐁이 보이죠? 이렇게 중력의 힘으로 아래로 퍼트리려는 거죠. 재밌죠?</p> <p>대부분 이렇게 번식을 하지만 버섯도감을 보면 특이한 모양의 버섯들이 많죠. 짜잔!(버섯폭죽) 이렇게 생긴 버섯이 있어요. 이름은 오디균핵버섯인데요. 말이 참 어렵죠? 이 친구는 어떻게 번식할까요? 이건 무엇처럼 생겼나요? 네, 폭죽 같지 않아요? 보세요!(폭죽을 당기며) 우와! 신기하죠? 이렇게 버섯들의 번식들은 다양해요.</p> <p>특히나 위험할 만큼 엄청난 번식력이 가진 것이 바로 이 버섯폭죽 모양의 '오디균핵버섯'이에요. 오늘은 버섯의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있을 '영화제'를 준비하는 시간이니 이 버섯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사실, 이 친구가 다음 시간 '버섯 영화제의 주인공'이거든요. 한 번 오디균핵버섯의 이야기 들어볼까요?</p> <p>먼저 이름부터 자세히 볼까요? 오디는 바로 우리가 아는 뽕나무의 열매죠. 산딸기와 같은 검은 보라색의 열매요. 그럼 균핵이란 뜻은 무엇일까요? 오디 속에 들어가서 병을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오디 농사짓는 분들이 가장 무서워 한다는 '오디균핵버섯' 그 이유는 (농부 스티커를 마이크에 붙이며) 이 농부의 입장에서 선생님이 이야기 해볼게요.</p> <p>흠흠, 안녕하십니까? 난 저, 오디마을 이장 김오디입니다. 아니, 친구들. 지금 버섯영화제를 기획한다고 해서 왔는데 맞아요? (네~~~) 아니, 쓸데없는 오디균핵버섯이 뭐가 교육적이라</p>
<p>대상의 구분 버섯 발표회 (1.5분)</p>	<p>조금 친숙해졌나요? 우리 '첫 시간'이기에 본격적인 '영화제'에 앞선 버섯소개 시간을 하는 것까지만 하려고 해요. 우리 버섯이 균류라는 것을 알았으니, 그 버섯을 또 나누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쉽고 재밌게 알아보도록 해요. 이거 누군지 알겠어요? 오, 현진이 친구 맞아요. 송이에요! 네, 그렇죠. 맛있죠. 네, 이런 맛있는 송이가 어떻게 번식 하는지 아나요? 여기 보세요. (버섯 우산을 꺼내 보이며) 여러분 버섯이 우산과 닮았다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바로, 송이와 닮은 버섯들은 (우산을 펼쳐 보이며) 이렇게 번식을 합니다! 아래에 달린 품퐁이 보이죠? 이렇게 중력의 힘으로 아래로 퍼트리려는 거죠. 재밌죠?</p> <p>대부분 이렇게 번식을 하지만 버섯도감을 보면 특이한 모양의 버섯들이 많죠. 짜잔!(버섯폭죽) 이렇게 생긴 버섯이 있어요. 이름은 오디균핵버섯인데요. 말이 참 어렵죠? 이 친구는 어떻게 번식할까요? 이건 무엇처럼 생겼나요? 네, 폭죽 같지 않아요? 보세요!(폭죽을 당기며) 우와! 신기하죠? 이렇게 버섯들의 번식들은 다양해요.</p> <p>특히나 위험할 만큼 엄청난 번식력이 가진 것이 바로 이 버섯폭죽 모양의 '오디균핵버섯'이에요. 오늘은 버섯의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있을 '영화제'를 준비하는 시간이니 이 버섯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사실, 이 친구가 다음 시간 '버섯 영화제의 주인공'이거든요. 한 번 오디균핵버섯의 이야기 들어볼까요?</p>
<p>관점의 전환 오디균핵버섯 (2.5분)</p>	<p>먼저 이름부터 자세히 볼까요? 오디는 바로 우리가 아는 뽕나무의 열매죠. 산딸기와 같은 검은 보라색의 열매요. 그럼 균핵이란 뜻은 무엇일까요? 오디 속에 들어가서 병을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오디 농사짓는 분들이 가장 무서워 한다는 '오디균핵버섯' 그 이유는 (농부 스티커를 마이크에 붙이며) 이 농부의 입장에서 선생님이 이야기 해볼게요.</p> <p>흠흠, 안녕하십니까? 난 저, 오디마을 이장 김오디입니다. 아니, 친구들. 지금 버섯영화제를 기획한다고 해서 왔는데 맞아요? (네~~~) 아니, 쓸데없는 오디균핵버섯이 뭐가 교육적이라</p>

		<p>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주! 아주 못된 버섯인데! 내 농사 다 망치고 요 버섯 하나만 있어도 그 뽕나무의 오디는 다 돌덩이처럼 딱딱해져서 먹질 못하죠. 얼마나 이기적인 버섯인가요?</p> <p>네, 농부 아저씨 이야기 들어보았어요? 어떤가요? 네, 인간에게 나쁜 버섯이죠. 그런데 왜 우리 버섯이야기를 들어야 할까요? 일단 오디 균핵 버섯 이야기도 한 번 들어볼까요?</p> <p>(오디균핵버섯 스티커를 마이크에 붙이며) 흠, 안녕하세요? 인간 여러분? 나 오디균핵버섯입니다. 그래요, 내가 뽕나무에 도움으로 사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나도 산 속에선 만나기 어려운 오디가 그렇게 대규모로 있는 천국이 있는지 몰랐죠. 난 대재앙이 오기 전 신이 나에게 준 선물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든 아이를 많이 만들어서 살아남아라! 라는 이야기인 줄 알았죠.</p> <p>그렇지만, 아이 낳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시나요? 예휴, 나는요, 갓길이 몸길이가 2~3센티도 안 되는 작은 버섯입니다. 그런데, 3m에서 10m에 이르는 나무의 열매에 나의 아기들을 데려다 주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게 되죠. 3m라 해도 우리 친구들 키가 160정도이니 친구들 키 두 배되는 높이의 나무, 저에겐 매우 높겠죠?</p> <p>이러한 높이에도 굴하지 않고 나는 내 몸을 용수철 삼아, 로켓처럼 아이들을 쏘아 올리죠. 그물론 인간의 작물에게 기생하기에 많은 해를 주지만, 조금만 우리를 이해해 줄 순 없을까요?</p> <p>네, (마이크를 돌리며) 어땀어요? 오디균핵버섯의 이야기. 네, 현진이친구, 슬펐어요? 네, 세진이 친구, 그래도 너무 나빠요? 그건 우리 인간만의 생각이 아닐까요? 아까 나눠주는 종이에 친구들이 써준 버섯 이야기, 하나만 읽어볼게요. '버섯 진짜 맛없어, 멸종하면 좋겠다.'란 말. 물론, 버섯이 싫을 순 있죠.</p>
<p>마무리</p>	<p>숲을 통한 내 자신의 소중함 (1.5분)</p>	<p>우리는 '환경감수성'을 이야기 했죠? 그렇다고 인간에게 막대한 손해를 주는 오디균핵버섯을 좋아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작은 버섯에게도 삶의 의미가 있듯이.</p> <p>인간중심으로만 바라보았기에, 우리 오디균핵버섯의 입장에서선</p>

		<p>전혀 들어주지 않았죠? 친구들도 버섯이 낫설었죠? 이렇듯,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더욱 사랑하는 부모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모두 자신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줄 수 있죠.</p> <p>공부해야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벌어야 잘 살죠.</p> <p>그렇지만, 여러분.</p> <p>버섯의 놀라운 번식력은 곧 생명의 소중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물며 사람이죠.</p> <p>'내 자신이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행복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상처받지 않고 숲을 통해 행복을 찾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p> <p>마지막으로!</p> <p>짜란(말려있는 시를 풀면서) 이 시 모두 들어봤죠?</p> <p>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란 시죠.</p> <p>모두 눈으로 읽어보며 내 자신에게 귀를 기울여보세요.</p> <p>제가 가장 친구들에게 선물해주고 싶은 말을 제목 뒤에 숨겨 두었어요.</p> <p>(제목 뒤 슬라이스를 보여주며) '너는 충분히 자랑스러워!' 친구들은 충분히 현재의 모습에서 자랑스럽습니다.</p> <p>친구들, 다음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직접 버섯이 되어서 역할극을 해볼거예요. 준비는 선생님이 할 테니, 쫓긋! 들어주는 귀와 초롱! 선생님을 봐주는 눈과 반짝! 웃는 미소만 있다면 환영입니다!</p> <p>그럼, 이번 시간 마무리 할게요.</p> <p>감사합니다. 태백산 국립공원 꽃밭침해설사 천서경이었습니다.</p>
--	--	--